

“北 원전 건설 추진 논란 정부 공격 이슈로… 국민의힘 선거 전략

# 매카시즘 망령 되살리기?”

민주 전북도당, “사실관계 확인보다 반역죄 등 선정적 표현 앞세워 공격  
현재까지 보수야당이 즐겨 사용했던 중복물이 활용 의심밖에 들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을 정부에 대한 공격 이슈로 삼으며, 구태정치적 유물인 매카시즘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이명연 도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날 29일 국민의힘은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 ‘이적행위’, ‘반역죄’ 등 선정적 표현을 앞세워 정부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연 수석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문건 첫 장에는 내부 검토 자료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방안에 대한 한계 및 향후

비핵화 조치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며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망국적 색깔론과 북풍 공작정치를 조장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북핵 문제 해결 없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역시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도당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지금

시점에 북한 원전 건설이라는 자극적인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보수야당이 즐겨 사용했던 중복물을 또 다시 4·7 재·보궐 선거에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도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중복프레임을 통한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 제시를 통해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진 선거 전략이 가짜뉴스 양상과 구태정치의 유물인 ‘중복 프레임’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일 생활 균형 위한 근로시간 단축·아동수당 확대를”

송성환 도의원, 도의회 농산경위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나홀로집에’ 아동 19%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위원회 전북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아동정책 실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부모 돌봄 없이 ‘나홀로 집에’ 있었던 아동 및 청소년이 19%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송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7)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발표하며, 일 생활 개선을 위한 자녀양육 정책과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아동수당 확대를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20대에서 50대의 도내 거주 0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으로 회수된 317부가 조사에 사용됐다.

설문은 0-18세 아동 생애주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아동정책을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정책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는데, 사회적 인식개선과 유급돌봄휴가 등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질문에 ‘가정에서(부모가) 직접 돌봄’이 44%에 달했지만, ‘돌봐주는 이가 없어 부득이하게 아동만

홀로 있었음’도 19%로 나타나 학교생활 공백으로 적지 않은 아동 청소년이 돌봄 공백 상태로 나타났다.

임신준비 지원정책으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일 가정 양립의 도움 정도가 4점 만점 중 3.3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영유아 정책으로 아동수당 확대(34%)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개선(34%)이 비슷하게 선호됐다.

송성환 의원은 “2020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전북이 100점 만점 중 47.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면서 “일 생활 균형의 포용정책이 요구되며,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아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 도선관위, 4월 7일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특별단속 실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원 보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정한 선거절차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부·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60일인 6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유호상 기자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 907호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4일 '2021년 신축년 어르신이 안녕한 전북도'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1년 한해 온정 가득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 ‘어르신께 감사·존경의 마음 담아’

전북도-도·시군 자원봉사센터, 올 한해 봉사 첫 시동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4일 '2021년 신축년 어르신이 안녕한 전북도'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1년 한해 온정 가득한 봉사활동에 첫 시동을 걸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시·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고, 희망찬 한해를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신년회를 진행했으며, 14개

시·군센터를 zoom으로 연결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 신년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들이 안녕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대한노인회 시·군지부를 통해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포함한 산세 떡국떡을 14개 시·군 600여세대에 전달했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 김광호 이사장은 “매년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섬김의 봉사정신을 되새기고자 어르신들과 함께 첫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 모시지 못해 아쉽지만, 올

해에도 도내 14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환경변화를 준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들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민회 도 대외협력국장은 “소외계층이 안녕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힘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자원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두세훈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가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원주2·더불어민주당·농산경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78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농산업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시급하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농업의 생산뿐만 아

니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유통과정에서도 지원이 확대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시의 책무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홍보·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추진 및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한 청년농부의 지원과 스마트농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수행하는 기관·단체·농업인 등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두세훈 의원은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FRP 사용규제·미세 플라스틱 대책 세미나

섬유강화플라스틱(FRP)에 대한 사용규제와 미세플라스틱 위험성 및 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우범기 전라북도 정부부지사를 비롯해 관련실국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정수 박사의 ‘제브라피쉬 배이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독성평가’라는 발제와 함께 박용근(장수군) 도의원의 진행으로 고영조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 나기하(군산) 도의원, 류지현 원광대 탄소융합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박용근 도의원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가격과 강도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따지려면 당장 사용을 규제 해야하는 재료이다”라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FRP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과 같은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 남원시의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 발족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조직한 연구단체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대표 강성원 의원)는 4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연구회는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지체제 공모와 관련, 공모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이 남원의 세계적 관광 활성화와 산간지역 교통권 확보, 전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공모 선정을 위한 시의회 역할론에 대해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